

## 코로나 종식 선포한 남가주벨엘교회 “교회, 예배의 본질 회복해야”

남가주 벨엘교회(담임 오병의 목사)는 지난 27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2명, 권사 7명 등 총 9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지난주일 코로나 종식 감사예배를 드린 남가주벨엘교회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경제 전면 재개방과 발맞춰 예배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남가주벨엘교회 지난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 사역이 축소된 가운데서도 펜데믹 이후를 내다보며 지난해 9월부터 권사학교, 안수집사 학교를 만들어 교회 리더십 훈련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스크를 벗고 임직 예배에 참석했으며, 이전처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 했다. 또 임직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재도약을 소망했다.

오병의 목사는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코로나로 더이상 교회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주벨엘교회는 지난주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고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이날 임직예배는 오병의 목사의 집례로 잔 강 목사(미주예성 서남지방회 중경지방회장)가 기도하고 양홍규 목사(미주예성 서남지방회 부회장, 굿프렌즈교회 담임)의 성경봉독에 이어 장동신 목사(미주예성 중경총회장,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가 “생명을 사는

자”(빌 3:10-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동신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임직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라며 “나로 사는 삶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의 생명을 살라”고 전했다.

임직예식에 이어 김영일 목사(미주예성총회 총무, 더 섬김과 나눔교회 담임)와 최낙현 목사(미주예성 서남지방회장, 세계복음 선교회 대표)가 축사했으며,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가 권면하고, 헌히터 목사(서남노회 중경노회장, 임

마누엘 장로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영일 목사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교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란다”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으로 존경 받고 행복한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최낙현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주를 섬기며 충성되게 사역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강태광 목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은혜 받는 직분자들이 되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임을 자부하며 늘 겸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 : 선 리, 에드워드 홍  
 권사 : 티나 나 권사, 셀린 리 권사, 윤경재 권사, 윤영희 권사, 이혜진 권사, 정시연 권사, 홍영미 권사

## 美 뉴욕주, 면허증에 'X' 성별 추가... 주지사, '젠더인정법' 서명



무지개 깃발. ©픽사베이

미국 뉴욕주가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의 성별에 기존 '남', '여' 이외의 'X'를 추가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 이날은 마침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성별은 난바이너리(남녀 구분에서 벗어난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

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법에는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자가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 당국에 알리도록 한 법원의 명령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생증명서상 이름을 변경하

려면 지정된 신문에 개명할 이름과 현재 이름, 주소, 출생지와 출생일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이 누군지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김재호 목사(브릿지교회)**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이사여, 아픔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 (금)~7월 24일 (토) 오후 7:30 (2일간)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THE BRIDGE CHURCH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한국 ‘세종도서’ 교양부분 우수 도서로 선정



츠를 엄선하는데 종교 부문에서는 17권만 선정한다. 또한 선정된 도서는 한국 전역의 2천800개 도서관에 보급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신학자,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의 본질, 공공성의 회복과 책임, 예배, 코로나 블루와 영적 돌봄, 선교의 뉴 패러다임, 언택트 상황에서의 신앙 교육, 영성 훈련 등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실제적 물음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내놓았다.

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란 무엇인가”(1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앙과 신학”(2부)으로 구성을 나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미래적 전개 양상, 교회 직분 및 역할 재편과 공동체 형성,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 윤리적 책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의 신학적 타당성과 가능성, 펜데믹 상황에서의 목회적 돌봄, 개교회의 팬

데믹 극복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일 성수와 공예배, 펜데믹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 Z세대를 위한 하이브리드 교육의 필요성과 듀얼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예수의 영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학적 좌표와 방향성, 평신도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로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박성호 목사(ANC은누리회), 김현경 교수(월드미션대학교), 박동식 교수(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훈 총장(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김사무엘 (인공지능 과학자), 이종찬 대표(J&B Food Consulting), 정요석 목사(한국 세움교회)등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경영학자, 인공지능과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지난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책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출간을 총괄한 이상명 총장은 “교회나 선교 현장은 펜데믹을 통과한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전과 위기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학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고자 했고, 실제적 예시와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력을 높였다”고 소

개했다. 이상명 총장은 “세종도서’ 교양부분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서 기쁘고, 특별히 논문 작업에 참여해주신 미국과 한국의 여러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들, 전문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에 쓰임 받는 책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CTS 아메리카, 7월 1일부터 공중파 18.8채널에서 송출

CTS기독교 TV(회장 감경철)가 남가주에서 디지털 공중파(DTV) 채널 18.8을 통해 7월 1일부터 송출된다.

동시에 CTS America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라이브(cts America), Smart tv (Apple TV, Roku, Fire TV, Android TV)를 통해서도 24시간 생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CTS 아메리카 백승국 대표는 “미주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남가주 지역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민 사회와 빠르게 소통하며 한인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매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 대표는 “CTS의 남가주 지역 공중파 송출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중파 송출은 오랜 기대에 대한 부응의 결과”라며 “공중파 송출을 통해 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방송사로 우뚝 설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CTS 아메리카 박봉성 제작국장은 “그동안 디렉 TV(채널 2092)를 통해 전 미주로 방영되어온 CTS 아메리카



가 미국 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남가주 지역에 공중파 방송을 송출함에 따라 더욱 폭넓은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CTS 아메리카는 미주에서도 시청률이 높은 한국 CTS의 대표 프로그램 ‘홀링굿, 내가 매일 기쁘게, 7000마라톤’ 등 CTS본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방영하는 것은 물론 현지 제작비율을 대폭 확대해 한인교계와 이민사회의 주요 소식과 이슈들도 풍성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한편 CTS 아메리카는 2006년 남가주에 설립된 이후, 한인 기독교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 유익하

게 24시간 복음방송을 전 미주로 전파해왔고, 방송 전문가들과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수준 높은 현지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CTS 기독교TV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TV방송이자 대한민국 86개 기독교 공교단이 연합해 설립된 최초의 기독교 TV로, 한국 노랑진 본사를 비롯해 한국 18지역, 해외 3곳에 지사를 두고 선교방송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미주 CTS 아메리카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시(1025 S. Placentia Ave. Fullerton)에 자리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선교 및 전도용 선풍기 나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선교 및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를 나눈다.

이번에 나누게 될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가 없는 고급 선풍기로 소음이 거의 없고 기본 좋은 바람으로 쾌적함을 더했다.

신청은 교회와 선교단체 및 기독교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단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7월 10일(토)까지 웹사이트 [www.holycityusa.org](http://www.holycityusa.org) 또는 이메일 [mijuholycity@gmail.com](mailto:mijuholycity@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선풍기 배부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배부 일정을 공지

할 예정이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는 “무더운 여름, 선교 기관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고급 선풍기 나눔을 계획하게 됐다”며 “선풍기의 시원한 바람처럼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선풍기 나눔에 동참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도 모집한다. 나눔에 동참하길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풍기 1대당 10달러를 후원할 수 있으며, 나눠질 선풍기에는 기증하는 기관의 이름 부착이 가능하다.

문의 213-527-8647, 213-384-5232 (이성우 목사)

##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 교단설립 60주년 기념대회 및 예배

날짜 : 주후 2021년 7월 11일(주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중앙루터교회 (Los Angeles Olympic + Wilton 코너)

- 제1부 경축사 : 이상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의완 목사(증경총회장) 오바울 목사(미주노회 노회장) 나성총 영사, 최석호 가주68지구 하원의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3남 랄프안 박사
- 제2부 : 졸업예배
- 제3부 : 학위수여식
- 제4부 : 미주대한신학 7대 총장 추대식
- 제5부 : 류당열 목사 자서전 출판 기념회



#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에배 및 복음 통일 위한 구국 기도회 개최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에배 및 복음 통일 위한 구국 기도회에서 삼세 삼창을 외치는 참석자들

## “북한의 3천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지부장 김영구 목사),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한 6.25 한국전쟁 71주년 상기에배 및 복음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지난 25일, LA 코리아타운 소재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여호수아 지 목사의 사회로 이철민 목사가 기도하고, 김은목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역대하 20:14-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간증은 샘신 목사의 사회로 김학송 선교사와 윤태양 집사가 간증을 전했다. 또 기드온 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가 6.25 전쟁에서 기

역해야 할 영웅들을 소개했다. 3부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박세현 목사의 인도로 최학량 목사, 윤건상 목사, 김영구 목사, 김학송 선교사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사라진 3천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굶주림과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2천5백만 동포들을 위해 △3만 여명의 한국 거주 탈북민과 6백 여명의 미국 거주 탈북민들을 위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북한에 억류중인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또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가 한반도 복음 통일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의 기초석

### 한국전쟁 71주년 남가주 기념식



6.25 한국전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진행된 6.25 한국전쟁 71주년 기념식

6.25 한국전 기념사업회(회장 박흥기)는 6월25일 LA소재 나성열린문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미 참전유공자와 미 현역장병, 협회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최만규 육군협회 미국 지부장의 사회로 육군협회 권오성 회장과 남영신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축사에 이어 한미 참전유공자의 감사 인사, 3.1여성동지회의 사물놀이 공연 등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권오성 육군협회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6.25 한미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퍼플드림재단(이사장 허연이)은 한미 참전유공자에게 사랑의 담요를 증정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의면하지 않았음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정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에스드대), 송정명목사(복음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중앙대), 신정민목사(복음원대), 유관지목사(중앙대),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 / 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의면하지 않았음은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리에서 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해외배송: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 동족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남가주 6.25 참전용사 위한 음악회 열려



남가주 6.25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

## “한미 동맹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향해 나아가야”

지난 27일, 실비치 평강교회(담임 김삼도 목사)와 실비치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남가주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음악회가 레저월드 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김삼도 목사가 인도한 경건 예배에 이어 실비치 재향군인회 허흥열 총무의 사회로 소프라노 이영주 씨가 “그리운 금강산”, “주기도”, 헨델의 메시아중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를 불렀다. 또 김영진 장로의 간증과 찬양이 이어졌다.

이날 특별 연설을 전한 김희창

박사(그레이트 한반도 통일 리더십 연구소 대표, 남가주 한국예배역기독군인회장)는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공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보호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회는 이정근 원로 목사가 한반도 통일의 희망을 노래한 “통일의 노래”를 제창했고, 애국가와 6.25의 노래를 부르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선교·전도용 날개 없는 선풍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미주 성시화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날개 없는 고급 선풍기를 교회 및 전도·선교 기관에 나누어 드립니다. 전도·선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선풍기로 스티커를 붙여서 기증하는 기관의 이름을 부착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하여 배부 여부와 배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신청 대상 : 교회와 전도·선교 단체 및 기독교 기관 (개인이나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은 제외됩니다.)
- ▶ 연락처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 ▶ 문의 전화 : 담당자(cell) 213-527-8647 / 사무실 213-384-5232 / 이성우 목사(cell) 213-675-6493
-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 ▶ 신청마감 : 2021년 07월 10일까지
- ▶ 이메일 : mijuholycity@gmail.com
- ▶ 온라인 신청 : www.holycityusa.org
- ▶ Pay to : Mi Ju Holy City Movement
- ▶ Mail :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선교 사역을 위해 1개 당 10불 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2

###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4)”

Tuxtra에서 졸업 동문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동문들의 사역지 소식도 듣게 되었다. 멕시코 남동쪽 끝의 유카탄까지 교회 개척을 위해 들어간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가 없는 산간 마을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 10개 이상의 마을을 돌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사역자도 있었다. 멕시코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 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두려웠다.

국토의 3분의 1이 온통 밀림으로 덮여 있는 나라다. 직접 가보니 원주민이 사는 산골 마을들은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고산 산악지대다. 반정부군이 자치령을 발표하여 민간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한다. 이번엔 우리 선교사 일행도 폭우가 쏟아지는 오후 오후 지역 안의 깊은 마을로 들어가다가 산길을 큰 나무 기둥으로 막고 반군 청년들이 통행세를 갈취하는 지역을 몇 번이나 만났다. 우리 임 선교사를 알아보는 반군들도 많았다.

지난 20여 년 너무도 많이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개신교회를 지원하는 임 선교사가 그들에겐 눈엣가시처럼 보인다. 그렇게 위협을 감수하며 이제까지 그런 곳 중심으로 교회를 무려 70개 이상 건축을 지원한 것이다. 막상 현장에 가서 본 필자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이 감동 받고, 비장해졌다.

반군들도 이제 개신교의 확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천주교가 변형된 그들 특유의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개신교의 선교를 철저히 배척한다. 마을 입구에 큰 관을 걸어 목사나 장로, 전도자가 마을에 들어와서 예배나 기도, 전도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써 붙인 곳이 많다. 얼마 전 까지만해도 개신교도들 중 마을 근처 강가에서 종교 행위 때문에 수장당하거나, 화형으로 순교 당한 개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신교도들도 있었다. 그런 반군화전민 지역에 들어가 우리 동문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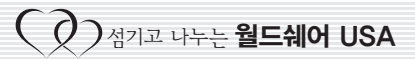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오꼬싱고 차파스 마을에 “엘로힘교회”의 예배당이 완공되었다. 우리 동문 예레미야 목사가 개척했던 교회다. 오꼬싱고 반군 지역에 처음으로 예배당이 세워지는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헌당예배를 드렸다. 멕시코 민족 장로교단 총회를 대표한 훌리안 목사와 노회장과 임원들, 또 우리 동문 목회자들, 올해 갓 졸업한 다니엘 전도사가 찬양 인도자로 초빙되어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했다.

아름다운 예배와 우리 선교사들은 말은 순서들을 정성껏 진행하였다. 교우들은 약 200명 정도다. 그 주변 산악지역의 주민 수가 500명 정도라 하는데 그렇다면 반 수 정도의 주민들이 교인이 된 것이다. 대단한 부흥이다. 이런 교회 부흥의 모습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보았다.

총회 임원인 훌리안 목사가 예배가 끝나고 후 필자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말했다.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헌당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멕시코 신학교 출신 목사들은 모두가 정말 훌륭해요. 멕시코 신학교는 우리 교단 아니 멕시코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 드렸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에베소를 찾아서”

고린도에서 18개월간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귀환하는 여정에서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잠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아시아 선교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는데 결국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를 찾아 선교를 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에 다시 찾아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 16번 등장하는 신약의 중요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으로 에베소에 돌아와 말씀을 배웠지만 성령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바울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힘차게 사역합니다.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아시아 선교를 하며 모든 아시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행19:10). 이때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집중했고, 놀라운 사역의 결실을 얻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선택했던 거점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역사는 B.C 13~14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에는 아마존부족들이 거주했고, 히타이트족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카이스테르(Cayster)강과 에게(Aegean)해를 접한 항구도시로 터키 내륙과 고속도로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에베소는 번창하는 무역도시였습니다.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는 에베소를 가리켜 ‘소아시아 최고의 상업도시(the greatest commercial center in Asia minor)’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과 산맥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인 이유로 다민족, 다문화 대형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일찍이 무역, 종교, 문화 등등으로 유명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로마제국 안에서 가장 부요한 지역인 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시아지역의 중심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제국뿐 아니라 동서양 문화를 모두 품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종교가 성행한 에베소는 종교 백화점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규모가 미식 축구장만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B.C. 6세기에 건축되었는데,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신전은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은 규모와 정교함이 탁월한 걸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도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데미를 모독했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행 19:28-29).

또 에베소 시민들은 제우스와 헬라의 신들을 섬겼고, 로마 황제 숭배와 각 나라 무역상, 여행객 이민자들이 가져온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 백화점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시스(Isis) 숭배와 세라피스(Sarapis)가 성행했는데 이런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마술(Magic), 주술(Incantation), 그리고 축신(Exorcism)이 흥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떠돌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 내다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행19:13~16). 이 말씀이 에베소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에베소의 복음화는 이런 우상들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우상의 극복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행19:19~20). 에베소에 마술이나

주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예술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많은 예술가들의 고향으로 알려집니다. 플루타르크(Plutarch)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술가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하류 시민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예술가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고, 예술가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예술은 에베소 건축술을 만나며 놀라운 건물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광장(Public Squares), 경기장(Stadium), 체육관(Gymnasium), 그리고 극장들(Theaters)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면 대형극장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피온산(Mount of Pion)언덕에 세워진 극장은 2만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극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정교함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소수의 성지 순례객들이 합창을 해도 공명을 통해 야외극장 전체에 청아한 소리가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의 위치, 에베소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혼합한 종교적 상황은 바울에게는 매력적인 선교지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거주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던 선교사 바울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살펴보니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애를 썼던 이유, 2차, 3차 선교 여행에 연속 방문, 가장 오래 사역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바울은 에베소 복음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탁월한 선교사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테네와 고린도를 통해 바울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에베소 사역에 임하게 합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 사역에 결실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 미주 한인교회 리오픈 3 나성순복음교회, 재개방에 기쁨 감사 넘쳐

## 진유철 목사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 기대... 기본에 충실한 신앙 중요”

캘리포니아지역의 전면적인 재개방 날인 6월15일 새벽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로부터 발송되는 공지사항을 받았다. 병원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쓰기과 거리 유지는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였다. 공식적인 전면 재개방(Grand reopening)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새벽기도에 나서는 성도들도 LA시의 이 같은 공지를 일찍이 받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예배당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썼지만 서로간 멀리 떨어져야 했던 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졌고, 찬양 또한 자유로웠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왔던 시기에서 1여 년이 지난 이제 예배의 모든 제약은 사라지게 됐다.

설교 전 10분 간 드리는 통성기도 소리는 이날 더욱 커졌다. LA지역 한인교회들의 본격적인 리오픈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진유철 목사는 이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왕하5:15-19)는 제목으로 새벽예배 설교를 전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자는 메시지가였다.

진 목사는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마음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나온다. 아람나라의 2인자라 해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자였지만 그토록 애틀을 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나아만이 엘리사로 인해 병고침을 받았고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표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목사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거절했다. 당시 권력 2인자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선물은 매우 진귀한 것으로 가득했었다. 엘리사가 이러한 선물을 거절한 것은 이 기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고위층의 병을 돈을 받고 고쳐준다는 악성 루머도 나올 염려도 있었을 것”이면서 “나중에 이 같은 엘리사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나아만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선물을 받지 못해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됐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삼각형은 위로 올라갈 수록 변이 좁아진다.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갈 수록 될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못 내려놓으면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사라질 세상에 대한 명예육과 미련을 내려놓아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진 목사는 “신앙에 고백과 감사가 큰 차이를 만든다. 나아만이 나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없었다면 복은 거기서 그쳤을 것”이라면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엘리사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한 날 한 날을 살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 해외 선교활동, 전교인 수련도 시작 돼

나성순복음교회가 해외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도미니카와 엘살바도르다. 이 중 방문이 가능한 도미니카에 8월 중 단기선교팀이 떠날 예정이다. 1년6개월 만의 선교팀 방문이다.

그동안 교회는 비록 선교지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꾸준히 현장을 살피고 발전시켰다. 팬데믹 중임에도 엘살바도르에 지난해 11월 성전을 지었고, 도미니카에는 선교센터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완공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교회는 팬데믹 중에도 선교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선교지의 기도제목과 상황들을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 매주 화-금요일 프리젠테이션을 공유했다. 또 선교지에 책정한 예산을 보내며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 각 교구들도 현지에서 단기선교를 못 가는 대신 비행기 표값을 보낸다든 마음으로 선교지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팬데믹 중에도 해외선교지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는 선교지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열방을 품는 300 기도용사를 모으고 있어 더욱 선교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는 리오픈을 한 주 앞뒀던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때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장갑을 벗었다. 또한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는 백신접종 완료좌석을 만들어 성도들 간의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재개방을 준비해 왔다. 오는 9월에는 지난해 열지 못했던 전교인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팬데믹 중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설교



진유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독일보

에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설교 피드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앙활동의 형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자칫 신앙의 기준마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 감사노트를 만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나눴다. 이를 통해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었다.

### 성전 불을 항상 밝혔던 중보기도... 진유철 목사 “기본” 강조

팬데믹 중에도 나성순복음교회의 성전에는 항상 불이 들어와 있었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회복 및 성령충만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교회 내 모든 교역자들과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했고, 이러한 릴레이 기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담임 진유철 목사는 전면 재개방 이후 성도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 진 목사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아직 있기에,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는 앞으로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또 팬데믹이 믿음이나 신앙에서의 기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팬데믹은 분명히 전환점이다. 그러나 그 전환에 있어 언제나 기본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팬데믹을 통해 종말의 때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다. 이를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생각했다. 형식적인 신앙과 진정한 신

앙은 위기 앞에서 차이가 났다. 닥쳐 온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드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계시록처럼 심판은 멀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새 출발이다.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세상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그래서 이 팬데믹이 주는 의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제든 지을 수 있다. 기본을 붙들고 본질을 붙드는 신앙인들로 자리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해답이다. 정치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흔들림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담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직장이든 어디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리오픈을 맞은 성도들의 기대도 매우 컸다. 팬데믹 중에도 새벽예배를 모두 참석했던 박복길 장로는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나면서 더욱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 진 때에 재개방이 이뤄졌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예배당을 찾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15일 새벽기도에 참석한 임진우 성도는 “팬데믹을 거치며 새롭게 맞이하는 대면예배는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예배모습. 성도들 간의 거리간격이 줄어들었다. ©기독일보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li> <li>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홍준 목사)</li> <li>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li> <li>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li> <li>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 ATS 준회원</li> <li>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li> <li>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li> <li>목회학사 과정 신설</li> <li>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p>	<p><b>MIDWESTERN</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ATS 정회원</li> <li>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li> <li>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CS 정회원 인준</li> <li>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li> <li>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GATEWAY SEMINARY</b>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b>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b>Azusa Pacific Seminary</b>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b>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b> 입학문의 ☎T:(626)857-2200</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 <b>광고 및 후원 문의</b></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 미국인 47% “국가의 도덕적 가치, 빈곤 상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은 미국의 도덕적 가치의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전국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국의 도덕적 가치 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나쁨(poor)”이라 평가했으며, 37%는 “타당함(only fair)”, 15%는 “좋음(good)”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탁월함(excellent)”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단 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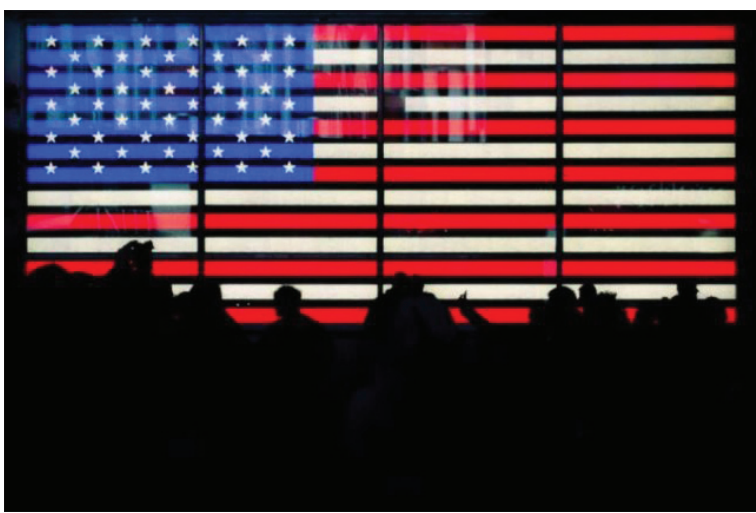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나쁨”이라 말한 응답율은 2019년에도 47%로 일치했으며, 2017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자 중 공화당원은 66%가 미국의 도덕적 가치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답하여, 설문조사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원 응답자는 30%만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미국의 도덕적 가치 상태에 “좋은” 또는 “탁월함”이라 답한 공화당원은 7%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원은 22%가 동의했다.

또한, 미국인의 67%는 “미국의 도덕적 가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28%는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서도 당파별 평가는 크게 달랐다. 도덕적 가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92%, 민주당원은 49%인 반면, 도덕적 가치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한 민주당원은 46%, 공화당원은 7%로



나타났다.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타당하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27%였으며 “탁월”하거나 “좋은”이라고 평가한 공화당원은 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의 리더인 사드(Lydia Sadd) 미국사회 연구이사는 온라인 분석에서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실망해 왔다”며 “그러나 당파적 변화는 워싱턴의 권력 이양이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을 인

식하는 방식에 평소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민주당은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낙관적이며, 공화당은 가장 덜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사드는 “공화당원의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관점은 2020년 선거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난 1년간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공화당원의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며 “2009년 대통령 지도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양된 이후에나, 2017년 버락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교체된 때에도 이 같은 우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미 남침례회, 중국의 위구르 집단학살 규탄 결의안 채택



©Unsplash/Macau Photo Agency

미국 남침례회(SBC)가 미국 기반의 교단 사상 최초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남침례회는 지난 15일 내슈빌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결의안 8호를 통과시키면서, 중국 공산당에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권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도 위구르족에 난민 자격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입국시키고,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수 종교인들과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와 복음을 제공 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현재 추산에 따르면, 100만에서 3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중국 서부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돼 이념적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 노동, 강제 낙태, 강간, 성적 학대를 비롯해 불임, 장기 적출, 인신 매매 및 생체 실험 등에 동원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결의안을 작성한 그리핀 굴리지 목사(조지아주 메디슨 침례교회)는 위구르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일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굴리지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인종 청소, 대량학살, 홀로코스트”이며 “위구르족은 우리 일생에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부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중국은 외딴 지역인 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에

정교한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술 및 DNA 샘플 수집 등을 동원, 위구르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굴리지 목사는 “위구르 박해를 규탄하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서적 명령에 순종하라는 SBC의 신학적 사명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학에 대한 침례교의 가장 큰 공헌은 종교의 자유다. 이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영역”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다. 침례교인으로서 우리의 두 가지 가장 큰 우선순위는 종교의 자유와 세계의 복음화”라고 당부했다.

굴리지에 따르면 남침례회는 현재 중국 정부의 행동을 비난하고, 미국 정부에 위구르족의 자유와 존엄성을 옹호할 것을 촉구한 최초의 미국 기독교 교단이다.

작년 여름, SBC 산하 윤리종교 자유위원회는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박해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 당시 미 국무부의 샘브라운 백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초청하여 CNN, BBC 등 주요 언론사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초,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대학살’로 규정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 장관인 안토니 블링컨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미국인 5명 중 4명 “종교 자유, 건강한 사회의 핵심”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와 비영리 기독교단체 서밋 미니스트리즈(Summit Ministries)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5명 중 4명 이상이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15%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응답자 중 9%는 종교의 자유가 건강한 미국 사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86%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원은 79%가 여기에 동의해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0%는 교회나 종교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법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미국인은 20%였으며, 30%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밋 미니스트리즈의 제프 마이어스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지속적인 보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어스는 “그러나 워싱턴

D.C.의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 보호를 철폐하는, 잘못된 평등법과 같은 입법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당파적 시대(Era of hyper-partisanship)에 종교의 자유는 민주당, 공화당 및 무소속 사이에서 광범위하며 양당적인 지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달 17일 미국 대법원은 기독교 아동 위탁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 가정을 위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폴턴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로 알려진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필라델피아 시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 부부에 입양하기를 거부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구가 운영하는 위탁기관인 ‘가톨릭 사회서비스(CSS)’와 계약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용납하지 않고, 종교적 성격 때문에 관행을 제한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필라델피아 시가 동성 커플을 위탁부모로 승인하지 않는 한, CSS와 위탁 보육 서비스 제공 계약을 거부한 것은 엄밀한 조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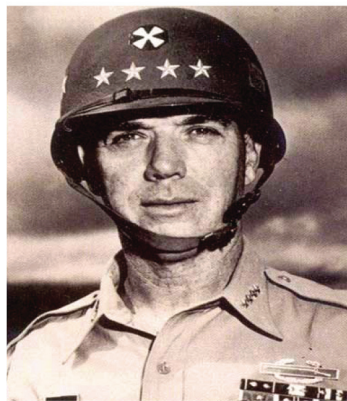
# Never Ending Story

##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교회가 깨어나 나라 보호해야”

미국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교회가 사회정의의 운동인 이른바 '우오크'(woke)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8일 '신앙과 자유 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이 플로리다 키시미(Kissimmee)에서 개최한 연례행사 '다수를 향한 여정'(Road to Majority)에서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 "부흥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친생명적이고 친가정적으로 알려진 이번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 모두가 우오크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일어나야 한다. 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오늘날 정치의 문화이다. 정치는 문화에서 나온 흐름이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자 한다면, 자유를 붙들고자 한다면, 일어나 미국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미국인들을 모으고 동원하여 투표소까지 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달라. 폭발물 제거를 위해 여러분이 직접 투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나의 아버지 라파엘 크루즈 목사님은 이에 대해 강단 뒤로 숨어 버린 미국의 목회자들보다 더 책임 있는 이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의 근본과 '영원한 원리'(eternal principle)가 전례없는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것은 좋은 일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영웅이었다. 토마스 제퍼슨 역시 미국의 영웅이었다. 아브라함 링컨 역시 미국의 영웅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뛰어난 애국자들이었다. 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국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는 국가(國歌)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각각의 발언들은 우리 중 가장 어리석은 이들에게조차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명백한 것이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발언으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다. 이러한 말을 하면 해고될 수 있고, 지워진다"고 우려했다.

크루즈 의원은 학교의 교과과정에 도입되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해서도 "이 이론은 편향적이며 거짓이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등지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좌파가 애국자들에게 '후퇴하라'고 확신시키고 '미국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싶어도, 이 같은 주장은 거짓 말더미에 깔린 것이다. 상식은 거기에 있다. 이는 진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에는 자연스러운 추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과 사기 저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점점 더 미쳐갈수록 미국 국민들은 이 나라를 버릴 끝에서 다시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낙태 찬성 정치인, 성찬식 참여 금지” 미 친생명 단체, 7개 도시서 집회



미국의 생명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of America)이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생명과 신앙을 위한 투쟁(Fight for Life & Faith)'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Students for Life of America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USCCB)가 낙태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의 성찬식 참여를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친생명 단체가 17일 미국 7개 도시에 위치한 대성당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of America)은 워싱턴, 캔자스 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타이틀러에 위치한 카톨릭 성당 앞에서 '생명과 신앙을 위한 투쟁(Fight for Life & Faith)' 집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 집회는 주교들에게 가톨릭 교인이면서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인의 성찬식 참여를 자제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안건의 표결일인 18일 전날에 열렸다.

워싱턴에 모인 다양한 친생명 운동가들은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 대주교에게 "이 중요한 신앙 교리를 옹호하고, 교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탄 호킨스 SLA회장은 낙태 옹호 단체인 굿터처 협회(Guttman Institute)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 '낙태 여성의 54%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기독교 여성들과 어머니들이 교회 지도부가 정하고 활성화시킨 낙태에 대한 뒤섞인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킨스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에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며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가톨릭의 신실한 실천과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생명을 위한 민주당원들(The Democrats for Life of America, DFLA)의 테리사 부코비나 이사장은 집회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당의 다수와 상충되지만, 낙태와 싸우기 위해 가톨릭 교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원리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의 회장인 테리 실링은 집회에서 "이 문제는 주로 태아를 구하는 것이지만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라며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 서서 도덕적 리더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낙태 찬성 정치인에 대한 성찬식 금지와 관련한 표결에서 총 229표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5명, 기권 6명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은 수정 및 승인을 거쳐 올해 11월 열린 주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 교회민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목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이침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일(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를 위한, 영혼을 위한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gen Edson 간)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세례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편 주차)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서예(델리안예배) (소세베일)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진 신인의 흠, 바른교회관의 흠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서 사랑 함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시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中 친정부 교회들, 공산당 100주년 앞두고 공산당 추종



©Pixabay

시진핑이 이끄는 당 따를 것 강조하기도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정부와 제휴를 맺은 교회들이 유일당 통치를 미화하는 행사를 조직해 참여하고 있다.

평안을 누리느니라" 말씀을 인용해 중앙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언급하며, 신도들에게 "시진핑이 이끄는 당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고 격려했다.

PCPA 회장인 산둥교구 존 팡(John Fang) 주교는 "가톨릭교회의 중국화(sinicization)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지난달 총칭 장베이 성 장베이구 중국애국천주교회(Chinese Patriotic Catholic Association, CPCA)는 '성모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하는 중앙당의 성지 참배에 감사와 찬양'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당국은 전국, 특히 수도 베이징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 에포크 타임스는 한 중국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이 감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0일 민정부, 중앙선전부, 중국정치법사위원회 등 18개 부서는 3개월 반 동안 불법 사회단체 탄압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500여 사회단체가 불법으로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ICC는 "협회 소속 회원들은 도시의 교회를 방문했고, 예배 모임 가운데 '공산당 축복 예배를 위한 감사와 찬양' 행사를 열었다"고 했다.

중국 기독교 박해감시기구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중앙 당국 관계자들은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종교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국영 교회와 가정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중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예배를 이끈 덩양 신부는 "교회는 '당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사회주의 사랑'과 신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법에 따라 신앙에 대해 말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과감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박해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약 9천 7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간주되는 가정교회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홍콩 타블로이드판 매체인 애플데일리(Apple Daily)에 따르면, 류위안롱(Liu Yuanlong) CPCA 부회장은 이날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을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류 부회장은 잠언 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강해진 기자

루터교세계연맹,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 선출



에스토니아 복음주의루터교회 신학연구소 안네 부르하르트 박사. ©LWF 홈페이지

루터교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 LWF)이 교단 최초로 여성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을 공동 작업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에스토니아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 연구소(EELCIT)의 개발 책임자이자, 국제 및 에큐메니컬 관계를 위한 교회(church for international and ecumenical relations)의 고문이며, 유럽 교회 학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의 운영이사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지난 9일 루터교세계연맹 평의회에서 에스토니아 출신의 여성 신학자인 안네 부르하르트(Anne Burghardt) 목사가 58%의 득표를 얻어, 짐바브웨 교회 협의회 사무총장인 케니스 음타타(Kenneth Mtata)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당선은 루터교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자, 중부 및 동유럽 출신으로는 처음 선출된 루터교 지도자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부르하르트는 LWF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러한 큰 영광에 대해 겸허히 생각하며, 평의회 위원들이 제게 보여준 신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매우 특별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며 "LWF가 하나님의 전체적 사명에 계속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 회원 교회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더 넓은 교회와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후 당선은 루터교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자, 중부 및 동유럽 출신으로는 처음 선출된 루터교 지도자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미국 최대의 루터교 교단이자, LWF 회원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의 엘리자베스 이튼(Elizabeth Eaton) 감독은 '종교뉴스서비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 "두 사무총장 후보 모두 상당한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며 "안네 부르하르트 목사에게 이끌렸던 점은 그녀가 세속 문화에서 자랐고, 십대 때에 침례를 받았지만, 교회의 역할을 21세기 사회에 대해 신앙의 번역가이자 통역가로서 본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45세인 그녀는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과 독일 뉘른베르크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정교회 예배학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부르하르트는 올해 11월에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11년간 루터교 세계 연맹을 이끈 마틴 융지(Martin Junge) 사무총장의 뒤를 잇게 된다. 임기는 7년이다.

앞서 그녀는 LWF 제네바 공관에서 에큐메니컬 관계 연구 비서로 일했으며, 2017년에 나미비아 윈드후크에서 개최된 LWF총회와 개신교 개혁 500주년 기념식

김유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org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안 막아야” 교단 총무의 ‘삭발’ 호소



류인각 목사(왼쪽)가 장성철 목사의 머리카락을 깎고 있다. ©기독교일보

## 예장 보수개혁 장성철 목사, 28일 성명 낸 뒤 삭발식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교계의 반발도 점점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돼 이 법안들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 교단 총무가 28일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예장 보수개혁(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장성철 목사와 합동선목(총회장 김국경 목사) 총무 류인각 목사는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뒤, 정 목사가 삭발식을 가졌다. 정 목사는 3일 전부터 금식도 해오고 있다.

장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신앙적 믿음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히는 목회자의 설교 등이 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종교·양심·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이 법안들에 대해 걸출한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각개전투식”이라며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각자 목소리를 내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처음부터 하나 된 리더십을 통해 목소리를 담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닥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한국교회 목소리를 담아 내야 한다. 한국교회에 이련 절

박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삭발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사랑 교단장 및 총무 모임 일동’ 명의 성명에서 “자극의 한국교회는 대사회 대정부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언택트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끊임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원인은 한국교회가 사분오열되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종교인 과세, 예배 회복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각개전투식 목소리는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 외침으로 끝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제 교관주의를 벗어나 한 목소리로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교총-한기총-한교연은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한국교회 교단들은 교관주의를 탈피해 대사회 대정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9월 정기총회에서 연합기관의 통합을 강력하게 결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부 교계 정치 목사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연합기관 분열에 앞장선 것을 한국교회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적극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하나 된 리더십을 통해 차별금지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 한국 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 4일만에 10만 명 달성

### 진평연 “국민 정서 명확하게 보여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이 만 4일 만에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6월 22일 오후 12시 47분경 10만 명을 채웠다. 청원자의 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경부터 해당 페이지에 게시됐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에서는 10만 명 달성 즉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다!’는 제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 측은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10만 명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몇 개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두는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찬성 측에 기대어 침묵하는 언론사들은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인 김원평 교수는 “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청원하면서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 퇴직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원평 교수는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 이 있고,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다”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평등법안은 작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 제한이 없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종교에도 모두 적용된다”며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AM, 11AM, and 2PM  
Youth Services: 11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연합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교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생을 살려 해방된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목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설교 세움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말학교/중고부 오전 11: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예배)  
FAM에 오전 11:30(청년 예배)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정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 김나오미, 백선경, 로완리  
신학사:임정열, 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들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동경하지만 그 동경은 어렵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변화에 새롭게 적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스코트 피츠제럴드는 “생명력이란 살아남은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능력은 소중한 능력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삶은 풍성합니다. 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삶이 풍성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다시 시작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나오미와 룯이 있습니다. 룯이 1장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과 룯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극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희극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거듭 다시 시작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시작함으로 비극

의 생애를 희극의 생애로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룯 1:20-21)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쇼다이”라고 부릅니다. “엘 쇼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는 풍족함, 풍부함, 부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룯 1:21)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빈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룯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빈손을 능히 풍족하게 채워실 수 있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은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십니다.

둘째, 과거를 떠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오미와 룯은 아픈 과거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어깨에 메고 사는 것은 새로운 만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벗을 때 새로운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룯의 남편은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룯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이삭 줍기를 떠나면서 한 말은 큰 울림입니다. “모압 여인 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지이다”(룯 2:2).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방 여인 룯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기 원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넷째, 작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룯은 이삭줍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룯의 이삭줍기를 통해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새 문을 열어 주십니다. 쓰러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한 단상

미국에서 7월 4일은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1776년 이날 토마스 제퍼슨과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대륙회의에서 서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도했던 300만 시민들에게 이날은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1775년에 전쟁을 시작했고, 식민지 시민들은 1776년에 국호를 미합중국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300만 중의 200만은 칼빈주의적, 청교도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전통을 청교도로 보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45년이 흐른 지금, 미국으로 자유의 열광자가 되게 하였던 청교도적 전통은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정부, 법원, 국회와 학교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개신교 신앙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교단이나 교회는 신앙의 개인화, 믿음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에 굴복하고, 동성애, 문화전쟁과 종교적 다원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퇴조와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의 건국 시절에 가졌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예루살렘과 같은 “언덕 위의 집”을 지으려던 선조의 믿음은 점차 엷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핵심에는 교회와 국가의 이혼(the Divorce), 국가와 교회의 대분열(the Great Separation)이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신앙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근대 영국에서 국가의 문제를 신학이 아닌 엄밀한 기하학의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토마스 홉스(1588-1679)는 이 정치-종교 분열의 창시자와도 같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은 정치와 신학을 분리하려는 노력이 고, 책도 두 부분 국가와 교회로 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누어져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과학의 영역이자 엄중한 기하학적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나중에 로크와 흄의 사상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국가-교회의 분리는 인본주의적 국가 이해를 가져왔고, 이는 계몽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히틀러리즘을 통하여 또 다른 비인간화와 대학살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5세기 겔라시우스(Gelasius) 교황 이래로 대부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으로, 중세에는 국가의 칼과 교회의 말씀의 칼로 설명했고, 루터는 두 왕국 이론으로,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연관성으로 그 협력적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가 분리되면 자녀가 힘든 것처럼, 국가와 교회도 이혼하면 그것도 국가적 재난입니다.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국가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구별되지만, 그중의 하나를 약화,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국가는 건전한 교회와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거짓 이념, 전체적 지배자, 인본주의의 불신앙과 헛된 유토피아적 소망을 분별합니다.

### 칼럼

## 빅토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며 감사드립니다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공로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 총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빅토빌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이십 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빅토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지도에서 지명을 찾아보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빅토빌은 낯선 곳이었고 처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역시 저에게는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의 한인회 어

르신들이나 한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역의 카운티 정부 및 시 정부, 학교, 언론사, 경찰서, 소방관들과의 관계도 한인으로서 긴밀하게 할 수 있어서 온갖 정보를 신속하게 여러 분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 함께 선교사역도 하고 연합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고난주간마다 성찬식과 세족식을 비롯한 사역을 함께 하던 존경하는 집 하이랜드 목사님과 데일 싱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리트빈 목사님, 헨터 콘잘레스 목사님, 톰 모리슨 목사님, 밥 네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빅토빌지역에 홍보해주었던 데일리 프레스 편집장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사회부 기자들과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천비전을 비롯한 기독교 언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정기적인 칼럼을 쓰도록 지면을 제공해준 우리 지역 언론자인 한미뉴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빅토빌에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면서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외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빅토빌에서 사역하는 동안 소속 노회 노회장도 네 번씩이나 역임했고, 사이비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세운 빅토밸리 한인목사회 회장도 두 차례나 했으며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회장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도 수 차례나 하게 된 것 역시 연합사역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섬길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체 건물을 갖게 되지 못한 교회의 형편이었음에도 매달 첫째 주일마다 선교주일로 지키며 첫째 주일에 나온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모든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며 지낸 시간이 벌써 이십 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죽하면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마음교회가 중대형교회로 생각하고 기도해주실 정도니까요. 그 외에도 월드비전을 통한 어렵게 자라나는 지역의 자녀들을 섬김과 함께 하이데저트 흡리스서비스사역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안의 노숙자 섬김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년 멕시코지역에 2박 3일 동안 내려가서 헨터 루비오 목사님을 도와 집 없이 길거리에서 잠

드는 사람들에게 320스퀘어피트 짜리 방 두 칸과 다락방이 있는 집을 10년 동안 건축해 제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귀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예수 마음” “빅토밸리아기”이라는 월간지를 통해 문서선교도 하고 전도지 배부를 통한 사역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해 고 손인식 목사님과 함께 통곡기도회를 비롯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선교를 위해 모퉁이동선교회, 성경 말씀 보급과 성경 번역을 위해 성서유니온선교회와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를 후원하는 것 역시 귀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제자 양육을 위해 어와나사역에 동참했으며 의료선교를 위해 국제 사랑의 봉사단 황성주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장애인후원사역과 교도소 사역 그리고 군부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기적이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임혜빈 회장과 우리 지역의 비키나겔 대표와 사역을 함께한 것 역시 은혜였습니다. 이민교회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KAME과 KAME 원로회 사역 역시 아름다운 추억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엘레이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 있고 큰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보며 나아가길 응답받고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교단의 총무로 선출됨에 따라 교회 사역과 겸직할 수 없기에 5월 30일 예수마음교회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6월 13일 교회로 공로목사로 추대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예수마음교회는 2016년부터 함께 사역하던 톰 모리슨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하이데저트연합개척교회와 연합하기로 하였기에 7월부터는 톰 목사님을 통한 신앙 양육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20년간 이루어졌던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중을 사랑해주신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일 목사 올림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슈  
 주일제전  
 2592기  
 공미라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하면 평생 무료수리면 언제든 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병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베데스다를 넘어서

요한복음 5:1~9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중략)...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 얻을 대상들이 되게 하시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것으로 육체에 있는 할례의 표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실 대상이라는 표시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생활에 지나친 중압감같은 제제를 가한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부담스럽게 느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 사도바울이 소개하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몽학이란 깨우쳐서 배우게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돌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고 가축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양을 사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며 속죄제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안에는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었는데 양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지 않고 따로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안 양문 안에 들어서면 조그만 저수지가 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도로 양쪽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깥 뜰에도 이런 행각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질문을 하면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 행각아래 온갖 병자들이 누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증거가 베데스다의 역사였습니다. 본문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용천이라 합니다.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 행각아래에는 많은 병자들이 행운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된 사람을 보시고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합니다.

이 병자는 상당히 대인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끌어 주어야 가까스로 믿어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은혜받기 위한 열심을 갖지 못합니다. 의지도 결단도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어야겠다고 깨달아지면 열심히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말씀 듣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 의존적인 신앙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병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하십니다. 이제 베데스다 못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 병자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된 병자를 말씀의 권능으로 고치신 이후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뒤집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간부터 율법시대의 은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한 구속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런 기점을 삼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역할은 예수님과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과 온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영적 구원과 육체의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이후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된 동기는 죄값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죄 값으로 38년 동안 죽지 못해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그 질병을 말씀의 권능으로 고쳐 주셨다는 것은 그 인생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거두어 정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죄 값으로 시달리는 복잡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못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베풀어 오셨던 자비의 치료는 이제 예수님과 교체시키면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통하여 영육간의 구원도 치유도, 회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어지는 그분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영육간에 구원을 받고 치료도 받고 해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의존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직접 예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즉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세서남-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웹소설의 웹툰화 (上)

# 〈이태원 클라쓰〉, 〈구르미 그린 달빛〉... 드라마가 된 웹툰

대중문화 주류로 올라선 웹툰과 웹소설 현상 장르소설 주된 목적, 기본적으로 현실도피형 비현실적 해피엔딩 정당화 위한 설정과 장치 삶의 유한성 적극 있게 하고 '대리만족' 만 줘

◆원천 콘텐츠 웹툰: 원천 콘텐츠 풀로 자리잡은 웹툰 플랫폼

최근 유튜브에서 방영되어 화제를 불러모은 〈머니게임〉처럼, 웹툰 콘텐츠를 원작으로 삼는 영상 콘텐츠가 연이어 제작되는 중이다.

특정 웹툰의 영화화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약 3-4년 전부터는 그 영역을 드라마까지 넓혀가고 있다. 드라마는 통상 전문 드라마 작가들과 PD들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 구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웹툰 기반 드라마 가운데는 이미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여럿 존재한다. 작년 초 방영되어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박서준(박세료이), 김다미(조이서), 유재명(장대희), 권나라(오수아), 안보현(장근원), 이주영(마현이) 등이 출연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2020)가 대표적이다.

동명의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이 드라마는 웹툰 콘텐츠와 TV 드라마의 포맷이 절묘한 케미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지상파, 종편, 케이블 할 것 없이 인기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제작 중이거나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확고하게 굳어질 전망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은 각기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원천 콘텐츠 풀로서 자리를 잡았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들보다 웹툰 작가 혹은 웹툰 스토리 작가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4년 전부터 웹툰 업계 내부에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바로 웹소설의 미디어 믹스, 즉 웹툰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향이 즉각적으로 드

라마 제작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웹소설, 이른바 양산형 장르소설의 심한 서브컬처성 때문에 웹소설 자체의 드라마화나 웹소설 원작 웹툰의 드라마화는 지지부진한 편이었다.

그나마 웹소설의 드라마화가 성공을 거뒀던 사례로는 박보검(이영), 김유정(홍라온), 진영(김윤성), 채수빈(조하연), 광동연(김병연) 등이 출연한 〈구르미 그린 달빛〉(2016, KBS 2TV)과 박서준(이영준), 박민영(김미소), 이태환(이성연), 표예진(김지아), 강기영(박유식) 등이 등장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 tvN) 정도를 들 수 있다. 드라마 시청자들 가운데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에, 여성향 웹소설의 내용이 드라마로 이전되어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남성향 웹소설 즉 무협, 이세계, 게임, 퓨전, 현대 기업극, 회귀, 환생, 대체역사 소설 같은 경우 웹툰계에서는 어느 정도 원작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지만 영상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성 회귀 정치, 법정 소설 〈여제인 마이 라이프〉가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를 통해 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송중기 씨가 출연을 검토중인 환생 기입극 〈재벌집 막내아들〉이 jtb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현대 대한민국 현실에 기반을 둔 남성향 판타지 장르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되기 시작한 상황인 만큼, 향후 무협이나 게임, 대체역사 소설 작품도 드라마로 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원천 콘텐츠 웹소설: 해피엔딩에 모든 것을 건 장르문학



웹툰 원작 드라마로 한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았던 〈이태원 클라쓰〉(2020).

한국 웹소설은 크게 남성향 웹소설과 여성향 웹소설로 나뉘어 있다. 웹소설 콘텐츠 대부분이 기존 양판형 소설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한국 양판형 소설은 미국, 중국, 일본의 장르소설들을 무단으로 번역, 각색해 주로 만화방 중심으로 대어하면서부터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기억하기로 1970-80년대 당시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만화방에는 남성을 위한 양판형 무협소설, 여성을 위한 로맨스 소설이 다수 구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해외 작품을 번역, 각색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이후 몇몇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한국 작가들만의 독창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양판형 소설들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일부 작품들이 서점에 소매판매용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장르도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작가층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기존 한국 장르소설들은 소수 유명 작가와 그 문하생들, 즉 고스트 라이터(대필 작가)들의 폐쇄적인 도제식 협업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PC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신형 장르소설 작가들이 등장해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1993)이나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1998)가 있다. 이런 작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남성향 장르소설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이전에 거의 무협이나 기업극으로 한정되었던 장르가 현대 판타지, 그리고 중세 혹은 이세계 정통 판타지로 다변화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 일어난 도서 대여점 열풍은 장르소설 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 대여점 열풍이 가라앉은 2000년대 초반에는 조아라, 문피아 등 온라인

장르소설 플랫폼이 인터넷 소설이 제작 및 유통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신규 작가들이 해당 플랫폼에 일정한 분량을 연재한 뒤, 대중의 호응을 얻으면 출판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 한국의 장르소설은 미국과 유럽의 판타지 소설, 그리고 일본 라이트 노벨, 이른바 '라노벨'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해외의 특이한 장르소설 설정들을 거의 무단복제에 가까우리만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융합시켰다. 이세계, 환생, 회귀, 게임, 대체역사 소설들이 계속 출간되었다.

남성향 장르소설뿐 아니라 여성향 장르소설도 일반적인 현대 로맨스 소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중세 혹은 이세계 판타지, 환생, 회귀, 대체역사 로맨스 소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국내의 두 거대 포털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2013년과 2014년 각각의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 웹소설'과 '카카오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렇게 번듯한 플랫폼을 구비하게 된 장르소설은 이제 단순한 서브컬처의 지류가 아니라, 대중문화 원작 콘텐츠 분야의 주류로 등극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다수의 작품이 웹툰화되었고, 최근에는 드라마화도 점점 더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장르소설이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부로 위치를 옮기는 상황은 결코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르소설의 주 목적이 기본적으로 현실도피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터넷 소설, 그리고 장르소설의 90% 이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극단적인 해피엔딩으로 마감한다. 새드엔딩이나 베드엔딩을 용납할 수가 없다. 독자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해피엔딩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온갖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설정과 장치를 끌어온다.

판타지 장르에 자주 등장하는 이교적 신성력이나 마법, 혹은 무형 세계관에 반드시 등장하는 무공은 너무도 일반화돼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게임 센스, 초능력, 환생, 회귀 등이 그나마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장치들이다.

이런 설정과 장치들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기계 장치로 연극무대에 등장한 신)' 역할을 맡아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한다.

이로써 장르소설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든다. 애초 작품의 목적 자체가 비현실적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데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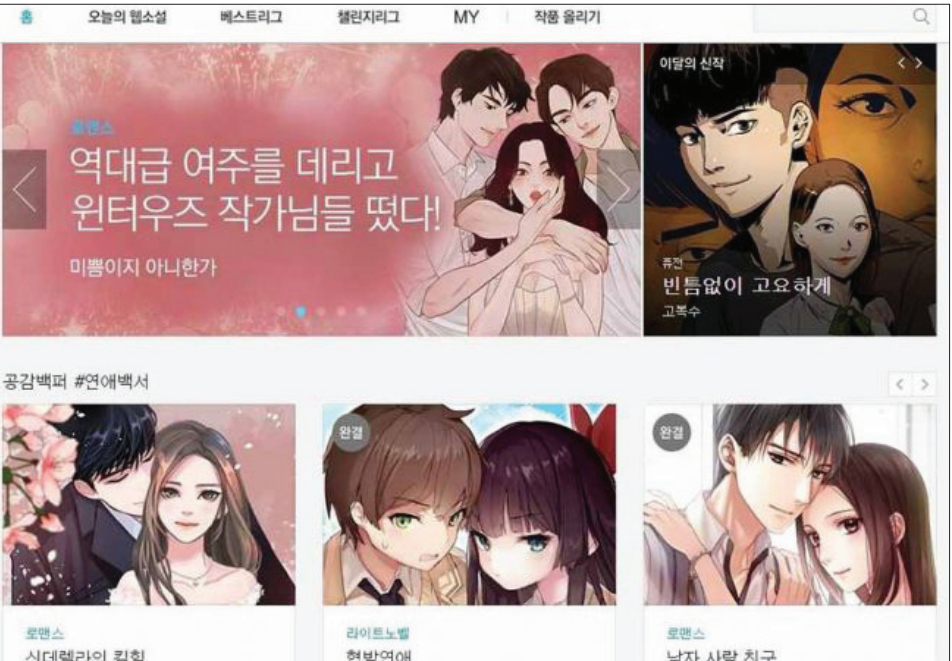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초기 PC통신 장르소설의 대표 성공작, 〈퇴마록〉(1993)과 〈드래곤 라자〉(1998).



여성향 웹소설 원작 드라마로 큰 성공을 거둔 〈구르미 그린 달빛〉(2016).



국내 웹소설 플랫폼 양대산맥 가운데 하나인 '네이버 웹소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사람을 낚는 교회인가? 세상에 낚인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  
신호섭  
다함 | 340쪽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일까요?  
그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참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과 역사 속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정립한  
신조와 신앙고백을  
근거로 치밀하게  
탐구하고 논증했다.

저자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교회에 대한 책을 일독하였다.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와 성경이 규정하는 규범으로 개혁과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교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소망하는 교회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이 투영된 교회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오기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예배가 은혜롭기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길 원할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이러한 마음은 간절하고 진실하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 교회를 세워 가지만 그것이 성경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어긋난다면 틀린 것이라 말해야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되돌아보고 교회 됨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제는 못참겠다고 아우성을 친다.

필자도 지금까지 교회가 충분히 희생하고 공감하고 양보해 왔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급단현상 같은 반응이라면 교회와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일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예배한 번 못드린다고 죽을 것처럼 다같은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교회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면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내하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반대로 타인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상처를 받는 일이라면 교회는 뱀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것이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종말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필자도 목회자이니 교회에 대한 글을 소책자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듯이 목회자에게도 저마다의 특징과 꿈이 있

니, 그의 은사와 성품대로 교회에 대하여 써내려갈 것이다. 필자 또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며 교회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진리와 영원한 것이 없다고 믿는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없는 자들도 교회를 말할 것이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불편하면 비진리로 여기는 시대에, 사람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듣고 기록할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에게 맞추어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모두가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언제부터가 교회가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되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러한 교회의 운영과 체제와 제도는 활성화된 것 같다. 지금도 그러한 흐름은 지역 교회 곳곳에 흐르고 있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담임이 있는 교회는 그러한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엄연히 세상과 다른 곳이고 구별되는 곳이고 차별되는 곳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배제하고 혐오해야 된다고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배격하고 물리쳐야 한다. 물질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와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와 여러 이념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교회는 진리로 성도를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체주의 시대이다. 모든 것을 허물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교회의 부정과 죄와 실수로 목사와 직분자들도 우습게 여기지는 시대이니 모든 직분들도 없애야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교회는 회개하되, 인간의 평등과 인권과 인본적인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거대한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안개처럼 교회를 뒤덮고 있다. 사방

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도 어쩌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업 같은 교회와 세상 같은 교회, 신학이 없는 교회와 영적인 질서가 없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을까. 예배 못드리게 한다고 떼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저자의 글을 보며 느낀 것 두 가지가 있다. 저자는 우주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이다. 지역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혈연과 학연과 지연 등 여러 인간적인 이유들로부터 교회를 아끼고 지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사랑하여 피 흘리며 사신 교회라는 가치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저자의 사랑이 교회다운 교회를 꾸꾸게 하고 그러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다.

우주적인 교회를 사랑하니 그분의 피로 세워진 지역 교회 또한 저자는 아끼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는 것처럼, 저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지역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질서와 직분의 폐해와 부정과 죄들로 인해 질서와 직분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있다. 필자도 목사직을 받고 살고 있지만 부끄러워 낫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정말 오늘날 교회는 직분의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교회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아야 할 직분을 버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모두 평등한 인간이고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은 다른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잘못된 권위주의와 은사주의는 교회를 세우려는 커녕 허물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의 질서의 직분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직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의 바른 역할을 자신의 경험을 담아 잘 소개하고 있다.

세상이 볼 때 비상식적이고 답답해 보이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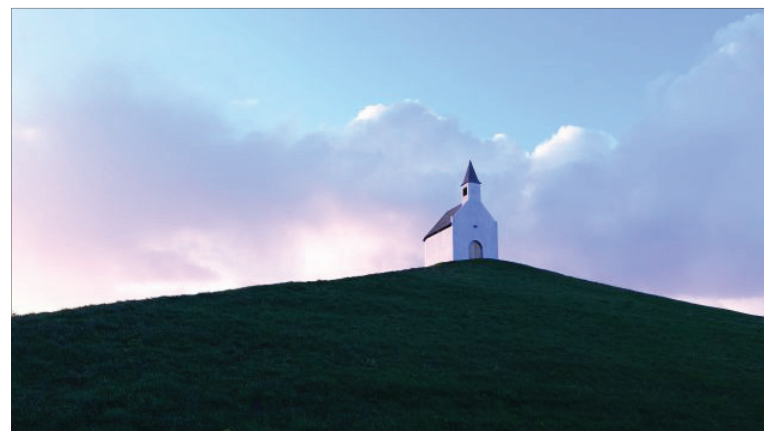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정의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란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 교회 됨을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작아지고 나눠주고 겸손하고 저항하고 뿌리 내리고 단단해지는 길로 가게 되길 소망한다.

방영민 목사  
서현교회 담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교회는 언덕 위의 도성이어야 한다. ©픽사베이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글루코산 아연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혈당을 섭취 후 혈액으로 운반해 주며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액 배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 인슐린 분비기능저하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뇨병의 원인과 관련이 중요한 필수 미네랄인 아연,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아연이 저하되면, 과다 운동무속,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i(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배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O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과다 과잉작용으로 아연을 운반하여 인슐린의 분비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슐린수용체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성 단백질에서 추출한 물질(O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킨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의 대상을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살의 질을 높일 필요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요거적인 혈당 강하를 원하시는 분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 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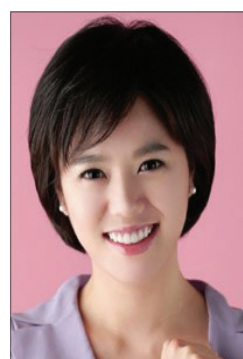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